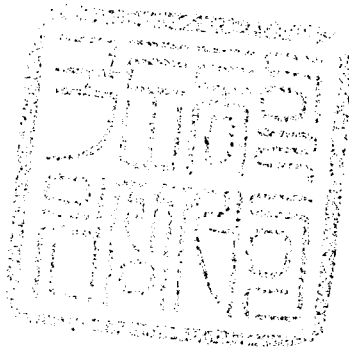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4年度 上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8.



연구책임자 : 김            중            인



## 目 次

第 1 章 序 論 .....	3
가. 研究 目的 .....	3
나. 研究 範圍 .....	8
第 2 章 共產圈 經濟体制의 變動要因 分析 (蘇聯 및 東歐) .....	13
第 3 章 北韓經濟体制의 問題點 및 變動要因分析 .....	25
가. 變動要因의 問題點 導出 .....	25
나. 經濟体制의 變動要因 分析 .....	29
第 4 章 改革의 展望 .....	54



## 第 1 章 序 論

### 가. 研究目的

本研究 報告書는 1974年 4月, 國土統一院의 研究委囑에 依하여 「北韓經濟体制의 變動可能性」에 對한 여러가지 要因을 分析하기 爲하여 試圖한 것이다.

一般的으로 「經濟變動」이라 함은, 資本主義 經濟体制에 있어서나, 또는 社會主義 經濟体制下에 있어서나 그들 体制가 가지고 있는, 固有의 經濟的 攪亂現象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資本主義 經濟体制는, 그 利潤追求의 手段을 「價格機構」에 依한, 自由競爭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資本主義 經濟体制의 發展過程은, 「슈메터」( J.A.Schumpeter)가 指適했듯이 끊임없는 變化의 連続<sup>1)</sup> ( Process of Change )이라 말할수 있다.

또한 이같은 變化過程은, 時代와 國家에 따라 여러가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古典學派의 「自由放任思想」( Laissez Faire. )이라든가, 1930年代에 대두한 Keynes學派의 財政, 金融政策을 통한 雇傭理論을 爲始하여, 2次 世界大戰以後에 나타난 後進國開發問題에 있어서는,

---

註 1 ) J.A.Schumpeter: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Fourth Edi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即 「로스토크」( W. Rostow )가 말하는 「躡躍의 先行条件」<sup>註2)</sup>을 어떻게 準備하느냐 하는 問題와, 「넉시」( R. Nursey )의 「資本形成 問題」, 「라이벤슈타인」( Harvey Leibenstein )의 「臨界的 最少努力 命題」( The critical minimeffort thesis )等 經濟構造를 形成하고 있는 客觀的 條件에 따라 多様な 것을 볼 수 있다.

社會主義 經濟體制에 있어서도, 「레닌」은, 蘇聯이 社會主義計劃經濟體制를 밑고 나간 다면, 社會主義體制的 發足以後 50年 以來로, 資本主義 經濟體制的 最強口인 美國의 生産力을 能가할 수 있으리라고 生覺하였으며, 그後 「후루시체프」까지도, 이같은 「레-닌」의 信念을 받들어, 지난 1960年度에 「長期 20年 經濟대체」를 채택함으로써, 1980年度 까지는 國民總生産에 있어서나, 1人當 GNP에 있어서나, 美國을 能가 하겠다고 宣言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蘇聯經濟가 美國經濟에 比하여 심히 落後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 經濟體制的 핵심인 中央集權的 官僚統制를 가지고 서는, 도저히 科學技術의 革新이라는, 오늘의 時代的 要請에 부응할 수 없다는 事實을 認識하게 됨으로서, 「맑스-레닌」主義가 오늘의 共產圈과 世界의 모든 共產黨을 支配하고 있는 思想임을 시인하더라도, 그 理論은 이미 時代的 適應性을 상실하고 있다는 증거

---

註2) W. Rostow : Process of Economic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1953

는, 지금까지의 先進社會主義 國家의 制度의 改革過程에서, 폭넓게 나타나고 있으며, 오늘날 共產國家 相互間의 理念分爭과 實利爲主의 民族主義的 對立過程에서 表面化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共產主義 陣營에 있어서도 그들 固有의 經濟體制下에서 經濟의 發展은, 이와같은 끊임 없는 制度의 改革과 變化를 追求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現象은, 1970年代로 접어들면서, 北傀에 있어서도 自体가 設定한 基本的인 政治的 目標에는 變化를 일으키고 있지 않지만, 國際周邊情勢의 變化와, 國內的 條件의 進前에 따라, 그들의 政治, 軍事的 要求에 따라서 커다란 變化를 일으키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北韓經濟는 일찌기 經驗하지 못한 새로운 試練期를 맞이하게 되었다.

再言할 必要도 없이, 國際的으로는 「닉슨」大統領이 추진한 東·西兩陣營間에 緊張완화 政策이 주효하여, 軍事的 對立이 해소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北韓과 인접한 中共이 急進的으로 國際社會의 일원으로 登場하여 가는 事態에 따라서, 北傀의 政治集團은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케 하는 戰略에 修正을 加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結論에 到達한 것이다.

北傀는 對內的으로 國防·建設의 完了가 確認됨과 同時에 工業化의 基盤強化라는 政治的 宣傳이 誘發하는 期待에 對한 새로운 充足이 必要로 하게 되었으며, 이같은 現象은, 現在 急進的으로 成長하여 가고 있는 周邊國家의 經濟와 比較할때 너무도 自명한

일이다.

그러나, 보다 直接的으로, 北傀의 政治 軍事的 要求에 衝擊的 變化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7.4 - 共同聲明」을 通한 南. 北間의 對話에 起因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다. 왜냐하면 韓半島의 統一이라는 새로운 政治的 課題에서 派生되는 南. 北對話는, 統一以前의 過程에서 南. 北間의 交流를 必要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交流自体는 곧바로 閉鎖社會의 部分的 開放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北韓經濟에 對한 政治哲學의 要求는 계속 政治的인 것에 틀림이 없으나, 過去와는 달리 軍事力보다는 住民消費生活의 提高를, 理念的인 成果의 保障보다는 實質的인 問題解決을 強調하지 않을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서 오늘날, 北韓은 重工業 優先策을 爲主로 하여 急速한 經濟成長을 爲하여 채택한 中央集權的 生産管理體制는 産業構造의 不均衡이라던가 生産活動에 있어서 지나친 統制에 따른 勞動生産性의 低下等, 심각한 內的인 고민을 안고 있는 것이며, 經濟發展이라는 社會的 變化 過程에서 계속적인 技術革命을 策창하고 이를 爲한 勞力을 傾注해 왔다.

특히 70年代에 들어 와서 重勞動과 輕勞動의 差似를 없애고, 工業勞動과 農業勞動間에 격차를 좁히며, 女性들을 家庭으로 부터 解放시킨다는 「三大技術 革命」을 目標로 세우고 努力하고 있는데, 生産力의 增大를 爲한 勞動力의 供給이 不足함으로서, 勞動集約的인 産業構造로 부터 漸次 資本集約的인 體制로 옮겨 가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지난 1960年代 10年間に 걸쳐 北傀가 추구한 「7個年 經濟計劃」期間을 契機로 하여, 政策變化의 영향을 줄수 있는 要因으로서는 다음 몇가지 事項을 들수 있는데,

첫째로, 北傀는 閉鎖體制下에서의 自給自足(Autary)의 經濟建設을 推進함으로서, 많은 問題點을 야기 시키고 있는데, 現在「6個年經濟計劃」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무엇보다도 資源과 設備投資를 調達하기 爲하여 積極적인 貿易擴大政策을 추진함으로서, 近年에 와서는 自由陳宮과의 交易이 擴大되어 가고 있으며, 이같은 國際市場에의 適應現象은 開放體制로 轉換할수 있는 一次的인 可能性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生産의 割當目標에 對한 지나친 執着은, 質과 能率의 問題를 도외시 하는 性向을 심화시킴으로서, 製品의 單純化와 創意性의 減퇴현상을 빚었으나, 現在 추진中인 6個年經濟計劃에서는 質的인 統制의 強化가 追求되고 있으며,

셋째, 官僚主義的 生産管理體系의 矛盾點이 심화되어 強制와 規律보다, 漸次로 功利性을 통한 誘因提供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工業化에 따른 技術的 不足을 充足시키기 爲한 技術者를 爲始하여 經營專門家들의 教育이 強調되고 있다는 事實을 들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北傀의 重工業 優先策은, 鉅業開發을 爲始하여 基礎施設材工業으로 부터 中間材 工業을 經由하여 最終消費材 工業部門으로 並行을 함으로서 生産材 工業部門과 消費材 工業部門間的 不

均衡이 심화되어 産業構造의 高度化나 聯関産業의 均衡的 發展이 어렵게 되어, 北傀는 現在 地方行政機關 中心의 地方工業의 設立을 強化함으로서, 分權的 管理体系로의 전환을 圖謀하고 있다.

따라서, 本研究 報告書의 目的은, 現在 北韓經濟가 얹고 있는 이 같은 여러가지 問題點을 對象으로 하여 變化의 可能性을 長期的인 觀點에서 分析하고 檢討하는 데 있으며 歴史的인 測面에서 蘇聯을 비롯한 東歐羅巴의 共產國諸國의 制度의 改革過程을 比較의 對象으로 하였다.

#### 나. 研究範圍

「經濟体制」와 「經濟變動」 사이에 矛盾을 是正하려는 努力은 東·西兩陣營을 莫論하고 繼續되고 있다. 共產主義 陣營에 있어서도 蘇聯共產黨 中央委員會는 지난 1969年 10月, 처음으로 「利潤指向型」經濟로 移行하는 措置를 取하였는데, 蘇聯은 「시스키노」化學工場의 經驗을 土臺로 하여 中央集權的인 計劃經濟를 크게 後退시키고 生産單位의 自由經濟体制를 擴大시키 도록 하는 한편, 「시스키노」化學工場은 中央計劃當局의 統制를 벗어난 示範工場으로서, 同年에 勞動生産性 87%, 生産量 80% 以上을 增加시켰다고 發表한 바 있다.

따라서 蘇聯의 「크렘린」當局은 이같은 成果를 基礎로 하여 漸次로 分權的 自由經濟体制를 擴大시켜 그들 經濟의 停滯性을 脫皮시키려는 意圖가 今번의 措置로서 分明해 진 것이다.

蘇聯經濟에 있어 企業利潤概念을 提起한 것은, 1962年 9월에 이른 바 「리벨만」(IVsey Liberman) 論文을 契機로 하여, 한때 計劃論爭이 크게 벌어졌으나 經濟實體의 變動에 對한 共產體制의 矛盾을 認定하지 않을수 없는 客觀的 事實때문에, 「이데오르기」에 앞서 現實的 利得을 選擇할수 밖에 없어, 蘇聯은 마침내 이같은 利潤制度의 導入을 試驗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코시긴」首相을 中心으로 하는 改革派는 1965年 9월에 經濟改革의 基本方針을 發表하고 消費材 工場을 中心으로 하는 約 6,000여개의 工場에 利潤의 動機를 부여 하고, 成果에 따른 賃金支払制度를 채택하기에 이른 것이다. 結局 蘇聯에 있어서, 이같은 試驗은 利潤制度의 導入이 蘇聯經濟의 相對的 停滯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結論을 내리게 했고, 그러기 때문에 自由化를 擴大시키는 措置를 斷行한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같은 生産單位에 利潤制度의 導入은 個人의 自發的 參與의 競爭的 調化를 無視하는 計劃과 統制가 人間創意를 無視한 것이기 때문에, 經濟發展을 停滯시킨 다는 基本的 事實을 自覺한 것으로, 結局 「이데오르기」의 예속으로 부터 벗어 나고 있다는, 징후라 할수 있는 것이다.

反面에 오늘날 資本主義 經濟社會에 있어서는 漸次, 經濟의 計劃化를 推進하는 反對現象이 進行되고 있는데, 資本主義 社會에 있어서 經濟의 計劃化는 自由主義體制의 矛盾이 生産財貨의 分配面 (Distribution)과 景氣變動面 (Business Cycle)에서 顯著하게

나타난 1930年代의 經驗을 土臺로 하는 것이다.

이같은 東·西의 經濟體制 變化는 人間의 理想이 高度의 成長과 公平한 分配, 그리고 自由롭고 安定된 經濟體制를 根本적으로 願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인프레」가 없는 持統的 安定成長, 公平分配, 그리고 自由와 安定은 「이데오로기」나 體制에 앞서는 人類의 共通의 理想이며, 오늘날 이같은 事實을 外面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經濟實體의 끊임된 壓力에 굴복하지 않을수 없음을 世界經濟動向은 証明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計劃化의 成果에 도취되어 計劃爲主의 萬能思想이 一般化하고 있음을 反省해야 할 事實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같은 「計劃」은 또다른 「計劃」을 連鎖적으로 불러 일으킴으로서, 궁극적으로는 「全面計劃」과 「全面經濟」를 招來하여 社會를 「奴隸化의 길」로 몰아 넣을 可能性이 있다는 「하이엑」(Friedrich A. Hayek)의 警告를 언제나 되새길 必要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蘇聯을 비롯한 東歐羅巴諸國의 經濟改革 過程에서, 一般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現象은 대체로 다음 5가지로 集約할수 있는데,

첫째로 東歐諸國은 經濟計劃의 伸縮性을 導入하여 「物量基準」보다 「價置基準」으로 目標額을 設定하는 同時에, 「微視的側面」보다 「巨視的 側面」에 置重하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는, 企業運營의 「自律性」이 擴大되고 企業의 利潤制度를

導入함으로써 行政命令이 減少되고 利潤率이 企業成果의 判斷基準이 되었으며,

세계, 企業에 對한 資金運營의 權限과 責任의 擴大現象을 들수 있으며, 따라서 企業은 投資된 資本에 對한 利子의 支払을 制度化하는 例가 많아 졌다.

네째로는, 價格形成에 對한 改革을 들수 있는데 生産價格을 可及的 生産費와 接近시키면서 國家의 補助金 支払의 必要性을 減少시키며 企業으로 하여금 利潤을 남기게 하도록 試圖한 改革을 意味한다.

끝으로 貿易의 擴大傾向을 들수 있는데 從來 共產國家에 있어서 國家獨占의 貿易形態로 부터 오늘날 獨占度가 크게 완화하여 下部企業에 貿易機能이 移管되어 보다 더 效率性和 伸縮性을 導入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따라서 本報告書의 研究範圍는 第2章에서 蘇聯과 東歐羅巴諸國을 爲始한 共產圈諸國의 여러가지 變動要因을 歷史的 側面에서 分析 檢討하고, 第3章에서는, 現在 北韓經濟體制의 變動要因 分析으로서는 一次로 오늘날 北傀가 當面하고 있는 變動要因을 導出하고 經濟構造上的 問題點을 分析함으로써 이같은 變動要因으로 示의 問題點과 關聯하여, 制度의 改革을 斷行하는 데에서 派生하는 「이데오로기」나 政治的 側面에서의 制約性을 分析의 對象으로 하였다.

끝으로 第4章 改革展望은 長期的 側面과 短期的 側面으로 区分하여 檢討하였는데 短期的 側面에서는 6個年 計劃이 끝나는

76年度와 長期的 側面에 서는 北傀가 發表한 「10大綱領」을 中心으로 한 80年代 初半期 까지를 對象으로 하였다.

## 第 2 章 共産圈 經濟體制의 變動要因分析

지난 1950年代 中半期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共産主義 國家들은 高度의 「中央集權的 經濟體制」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1951年 以後로 「유고스라비아」에 서는 大幅的인 經濟改革이 이루어 졌으며, 1956年 蘇聯의 第20次 共産黨大會에서는 社會主義에 對한 獨自의 路線이 公式으로 認定되게 되었으며, 그後 共産圈陳宮 内部에서는 여러가지 經濟的인 面에서의 改革이 不斷히 繼續되어 왔다.

이와 같은 經濟制度 改革의 一般的 目標은 比較的 높은 水準에 到達한 共産主義 經濟의 效率性을 增大시키는 데에 目的이 있는 것으로서, 그 內容은 共産主義 諸國 各國間에 比較的 共通的인 것이 많음을 볼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蘇聯을 비롯한 東歐羅巴諸國의 經濟改革 過程에서 一般的으로 나타나고 있는 現象은 대체로 다음 5가지로 集約할수 있는데, 첫째로, 經濟計劃의 伸縮性을 導入하여 物量基準보다 價值基準으로 目標額을 設定하는 同時에, 微視的 側面보다 巨視的 側面に 置重하는 傾向을 보여 주고 있다. 둘째로는 企業運營의 自律性이 認定되었고, 企業의 利潤制度를 導入함으로서, 利潤率이 企業成果의 判斷基準이 되었으며, 셋째, 資金運營의 權限과 責任의 擴大現象을 들수 있으며 따라서 企業은 投下된 資本에 對한, 利子의 支払을 制度化하는 例가 많아 졌으며, 넷째로서는 價格形成에 對한

改革을 들수 있는 데, 生産價格을 可及的 生産費와 接近시키면서 國家의 補助金 支拂의 必要性을 減少시킴으로서, 企業으로 하여금 利潤을 남기도록 試圖하였으며, 끝으로 東·西貿易의 擴大傾向을 들수 있다. 從來 共產國家에서는 國家独占의 貿易形態로 부터, 오늘날은 이 같은 独占度가 크게 완화되어 下部企業에 貿易의 機能이 移管되어 보다 더 效率性和 伸縮性을 導入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 가. 經濟計劃의 伸縮性 導入

蘇聯이나 東歐羅巴共產圈 諸國에 있어서 最近의 經濟計劃은 物量基準뿐 아니라, 보다 더 價值基準으로 目標額을 밝히고 있으며, 生産, 分配, 消費, 價格, 賃金等 經濟의 모든 細部部門에 까지 미치는 것으로서, 國民經濟의 巨視的 (Macro) 側面뿐만 아니라, 企業經營인 微視的 (Micro) 側面에 까지도 包括하고 있으며, 後者の 경우, 個個企業에 주어 지는 計劃은 指令的인 性格을 띠우고 있는 것으로서 法的 義務가 隨伴되어 왔다.

그러나 「스탈린」死後 國民經濟의 運營管理에 關한 諸般 缺陷으로부터 탈퇴하기 爲하여, 여러가지 試圖가 이루어 졌는데, 우선 「스탈린」式 經濟計劃의 缺陷은, 經濟官庁의 重復主義, 平行主義, 管理計劃의 過度한 中央集權制, 指導의 官僚的 方法 등으로 代表된다.

1954年 1月, 党中央委員會가 이러한 여러가지 缺陷을 指摘한 以後, 蘇聯當局은 同年 10月까지의 無數한 中央, 地方水準의 各種 部署를 整理하였고, 그結果 約 453名의 過剩人員을 生産에 動員하는데 成功하였다. 한편 同年 10日 党中央委員會는 이같은 成果에



힘입어 또다시 經濟指導方法의 官僚性, 行政管理機構의 肥大化  
省과 企業사이 에 過多한 中介機關等 여러 가지 敝陷을 指摘하고 是  
正策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같은 決定에 따라서 蘇聯은 各共和國의 省을 擴大하는 措置를  
講究함과 同時에 1955年 8月에는 計劃過程 基本投資, 企業再建 貨  
金 및 融資의 部門에 關한 企業長의 權限을 大幅 擴張함으로써,  
過度한 中央集權化를 緩和하고 企業測의 創意的 活動을 助長하고  
勞働者들의 勞働意慾提高를 改善하였다.

한편, 1955年 5月에는, 「Gosplan」自體의 機構改革이 이루어  
졌는데 그 內容은 「長期計劃作成」과 「短期計劃作成」이 分離되고  
Gosplan은 前者만을 맞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Gosplan은 長期  
計劃作成과 主要經濟問題 研究에만 專念하게 되었는데, 이같은 事實  
은 當時 蘇聯經濟에 나타난 部分的 不均衡이 短期的인 것이 아니  
라 主로 長期的인 側面에서 解決되어 저야만 한다는 새로운 認識  
에 근거한 것이다.

나. 企業運營의 自律性和 企業利潤制度의 導入

生産企業은 計劃值의 達成을 爲하여 보다 自律的인 運營을 試  
圖하게 되었고, 經濟關係에 있어서 上下階級關係는 漸次 緩和되고  
契約에 依한 橫的 關係가 增加되었다.

또한 過去에 많았던 企業에 對한 行政令이 減少하고, 利潤率  
企業活動의 標準으로 認定받게 되었다. 이것은 製品販賣에 依한  
收益과 企業이 保有하는 生産「фон드」(固定과 流動)와의 比率을

뜻하는데, 이것이 企業活動의 經濟的 効率을 測定하는 總括的 指標로 登場하게 되었다.

從來에는 收益과 所有生産「폰드」間에 아무런 關係가 없었기 때문에, 生産「폰드」의 凍結, 過多한 生産「폰드」의 보장, 「폰드」能力以下の 目標策定等 극심한 弊害가 公公然하게 行해져, 蘇聯經濟에 莫大한 損害를 招來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改革은, 一定한 生産「폰드」를 保有하는 企業은, 一定한 生産能力, 一定한 利潤率과 利潤額을 갖는다는 前提下에서 그것을 制度化하고, 더 나아가 從來의 生産「폰드」無償制를 有償制로 轉換하여 一定한 使用料를 支払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事實은 企業의 獨立採算制를 철저하게 하기 爲한 措置였다.

다. 企業運營의 權限과 責任의 擴大

特定한 改革의 成功与否는 施行될 價格機構와 刺戟制度的 持性에 크게 依存한다. 왜냐 하면 이 두 制度的 變數 (Institutional parameters)는 計劃入案者들이 金融政策과 함께 價格까지도 政策 道具로 活用할수 있는 範圍를 決定하여 줌으로서, 그들이 個別 商品에 對한 目標의 設定이나 生産者에 對한 材料 및 設備의 配給計劃을 樹立하지 않고서도, 經營者들로 하여금 스스로 中央의 計劃目標에 符合되는 諸般政策 決定을 내릴수 있도록 引導할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各企業은, 그들의 生産 및 財政規模, 그리고 그構成과 關聯하여 自体計劃을 起草하거나 計劃을 執行하는 過程에서 보다

많은 自律性을 부여 받고 있으며, 各企業은 그들의 物資供給者(都  
売商 및 小売商의 경우)를 選定함에 있어서나 그리고 請負業者나  
再請負業者를 選定함에 있어, 보다 많은 選擇의 機會를 갖게 되었  
다.

企業間의 契約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供給하느냐에 對한, 高位  
當局의 決定을 단지 形式的으로 同意하는 일은 거의 없어 졌으며,  
企業의 財務獨立性은 利益의 相當한 部分을 過去보다 더욱 많이  
留保할수 있도록 許容하여 줌으로서 鼓吹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製品販売高, 利潤額, 利潤率과 比例하여 一定한 金額을 장려  
基金으로 留保하여 勞働者들로 하여금 企業全體의 成績에 關心을  
갖도록 하여 企業의 經濟的 效率을 提高하려는 方針이 採用되었다.  
從來에도 이같은 企業「폰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額數가 적  
었고 利潤의 節次가 復雜해서 有名無實했던 것인데, 近年의 改革에  
서는 基金의 形成率을 훨씬 높이고 (大體로 利潤의 20%), 利  
潤節次를 簡素化하여 勞働者들의 強力한 物質的 刺戟제가 되도록  
한 것이다.

要컨대, 一定한 計劃下에서 生産能力의 利潤效率의 極大化, 그總括  
的 指標로서의 利潤率, 物質的 誘因의 強化, 企業의 經濟的 自立性  
의 強化等이 經濟改革의 核心을 이루었고 管理方式에서 보면, 行政  
的 方法으로 부터 經濟的 方法으로, 中央集權制에서 地方分權的으로  
大幅移行되었음이 特徵이라 할수 있는 것이다.

라. 價格形成에 對한 改革

生産財의 價格은 「社会的 所要費用」(socially necessary cost)에 一致되도록 修正되고 있다.

「불가리아」와 「루마니아」를 包含하는 東歐의 몇몇 國家에서 는, 비록 價格形成에 對한 상세한 情報가 欸如되어 있지만 社会的 所要費用을 더욱 融通性 있게, 예를 들면 資本費用과 賃貸料 를 包含하여 價格을 原價의 變動과 需要條件에 一致하도록, 더욱 자주 修正하여야 할 必要性은 어느 國家에서나 認定되고 있으나, 이러한 考慮에서 導出된 現實的인 結論은 國別로 相異함을 볼수 있다.

따라서 「체코」와 「헝가리」에서만, 企業이나 聯合會가 標準化 된 生産財의 產出量의 實質的인 部分에 對하여 價格策定을 할수 있도록 許容된 뿐이며, 總產出量에서 「自由價格」(Free Price) 이, 許容된 生産財가 占하는 比重이 「체코」보다 더욱 큰 「헝가리」의 경우, 國內生産原材料, 販賣高의 28%, 加工製品의 85% 가 直接價格統制의 對象이 되지 않고 있다.

經營者에 對한 價與金에 있어서도 「폴란드」와 東獨에 있어서 는, 利益計劃(Profit Plan)의 達成에, 蘇聯에서는 利益 및 販賣計劃에, 「체코」에서는 附加價置에 該當되는 總所得(Gross Income)에, 「헝가리」에서는 計劃에 關係없이 總利益(Total Profit)에, 「불가리아」에서는 勞動生産性的 增加와 利益에 依하여 決定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는 償与金이 計劃達成과 關聯되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것이 利益과 關聯이 있는지 或은 다른 指標에 依한 것인지는 아직 確實히 알수 없다.

그러나 오늘날 共產圈 諸國의 一般的인 特徵은, 國家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生産價格을 可及的 生産費와 接近시켜서 國家의 補助金 支払을 減少시키며, 普通 企業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利潤을 남기게 하도록 하는 改革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同時に 協同農場에 對하여서는 支払하는 購売價格은 工產品價格에 比하여, 上昇시킴으로서 農業生産을 刺戟시키고 農村의 生活水準을 向上시키도록 勞力하고 있다.

「불가리아」 「체코」 「헝가리」 및 「유고」에 있어서는, 많은 價格을 市場의 需要供給에 依하여 自由로히 決定되도록 改革의 方向을 유도하고 있다.

#### 마. 東. 西貿易의 擴大

從來 共產國家의 貿易은, 國家独占 形態로서 國家의 貿易省이나 貿易商社에 依하여 運營되어 왔으나, 오늘날은 이같은 独占度가 크게 緩和되어 他省이라든가 下部企業 單位로, 貿易의 機能이 移管되어, 보다 더 伸縮性和 效率性을 많이 導入할수 있도록 하였다.

蘇聯과 東歐諸國은 1953年 「스탈린」 死亡時까지 徹底한 아우타키(Autarky) 經濟體制를 指向해 왔고, 그結果로서 貿易의 經濟的 意義를 相對적으로 輕視하여 왔는데, 當時의 共產圈 經濟理

論에 依하면, 貿易은 어디 까지나 生産의 發展을 돕는 諸要因 가운데서 補助的인 것에 不適當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같은 理論은 1953年은 고비로 貿易의 收益性이 再認識되기 까지 支配的인 位置를 찾아 하여 왔던 것이다.

1950年代의 蘇聯 및 東歐諸國에 對한 Autarky의 程度를 알아 보기 爲하여 「潛在貿易量」 (Trade Potential) 이란 概念을 보기로 한다.

即, 潛在 貿易量이란, 가장 높은 國民所得을 가져다 주는 貿易量, 다시 말하면 消費水準이 不變하는 경우 一定期間에 있어 가장 높은 成長率을 保障해 주는 貿易量을 말한다. 따라서 實際의 貿易量과 潛在貿易量과의 差異가 클수록 當該國民經濟는 「最適貿易狀態」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意味한다.

1955年 東歐圈의 모든 國家들은 例外없이 1人당 實際貿易量이 潛在 貿易量의 50%에 未達하고 있는 現象을 볼수 있다. (表 2-1)

(表 2-1)

## 東歐諸國의 實際貿易과

## 潛在貿易量의 比較 (1953年)

國 名	1人當貿易量(\$)	1人當潛在貿易量(\$)
蘇 聯	33	117
東 獨	137	298
체 코	170	375
항 가 리	117	236
폴 랜 드	68	188
루 마 니 아	45	145
불 가 리 아	56	160

資料： 蘇聯，東歐經濟速報，1970

이 같은 事實은 當時 東歐圈 諸國에 있어 Aultarky의 程度와 함께, 그들이 最適貿易 狀態로 부터 얼마나 크게 떨어져 있는가를 반영하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같은 自給自足 經濟體制를 追求한 結果, 東政圈 諸國 에서는 다음과 같은 矛盾點이 나타 나기 始作하였는데, 첫째로, 域內 모든 國家들이 例外없이 比較的 不利한 經濟部門에 많은 投資를 하게 되었고, 둘째로는, 域內 各國에 있어서의 平行投資의 增加 現象이었다. 특히 機械工業에서 이 같은 傾向이 顯著하였는데, 1957年 現在 「체코」는 現存하는 모든 機械의 約 50%를 製造 하고 있었으며, 東獨은 55 ~ 90%의 機械를 製造함으로써 域內

국가들 間에 重復되는 製品을 生産함으로서 對西方關係에서는 相互 間에 熾烈한 競争을 不可避하게 하여, 그들의 立場을 弱化시켰다. 따라서 이같은 重復은 結果적으로 많은 生産部門의 操業을 非經濟的인 水準에 까지 低下시킨 結果를 招來하였다.

세째로, 이같은 自給体制은 東歐圈 全域을 通하여 많은 生必品 特히 原料의 慢性的 不足을 가져 왔는데, 이같은 現象은 從來 一定의 原料를 供給해 오던 國家가 모든 物資의 自給体制을 가춘다는 名目으로, 다른 分野에 投資를 分散한 結果가 일어 났고, 따라서 從來의 原料輸入國은 높은 費用을 投入해서 必要한 原料를 自体生産하지 않을수 없었기 때문에, 經濟的 損失이 야기되었는 것이다.

그러나 그後 1953年 「스탈린」死亡 以後 이같은 自給体制에 對한 反省과 함과 從前까지 輕視되어 왔던 貿易의 重要性을 새롭게 認識하게 됨으로서 1950年代 後半에 와서는, 마침내 東·西貿易의 擴大趨勢로 發展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60年代 前半期까지의 東·西貿易은 東歐와 西歐間에 主로 原料와 製品의 補完的 交易이라는 制限된 形態에 머무르고 있었으나 「후르시초프」의 失脚以後 蘇聯을 비롯한 東歐共產諸國들은 그들의 閉鎖的인 社會主義 統制經濟의 非能率性을 극복하기 爲하여 「比較生産費」(Comparative Cost)의 原則에 따라서 經濟体制의 合理化와 西方世界와의 交易增加를 積極 推進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Comecon」諸국은 1964年初에 「Comecon銀行」을 創設하여, 域内 交易增大와 社会主義 諸国間의 多覺的 決裁制度의 確立 및 共通通貨創出에 努力하였다. 그러나 1960—69年間的 10年間に Comecon域内 貿易의 年平均 增加率は 8.4%로 나타나는데 比하여, 蘇聯等 Comecon 諸국의 西歐諸国과의 交易은 輸出의 年平均 11%, 輸入의 年平均 12%나 增加하여 共產諸국의 自由 陣營과의 交易構成比가 1955年の 26.5%에서 1970년에는 38.2%로 增加하였다. (表 2 - 2) (表 2 - 3)

또한 1971年 1月부터, Comecon 諸국은 새로운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樹立하여 Comecon의 國際分業体制의 強化와 産業 全般에 걸쳐 長期生産 및 需要의 計劃을 樹立하여 會員國間의 科學技術用役의 交流와 交易增大로 生産의 能率向上과 消費生活의 改善을 企圖하고 있다.

이와 같은 Comecon 域内相互間의 交易의 拡大와 東·西貿易의 拡大는 必然적으로 諸国間의 貿易에 있어 「外國貿易價格」은 一般的으로 「生産費」(Production cost)를 「커버」한다는 原則이 대두하게 되었으며, 國內의 生産者價格이 外國貿易 價格形成의 基準으로서 役割을 할수 있는가 하는 問題에 對해서 Comecon 國家間에는 數年間に 걸쳐 論爭이 있었던 것이다.

(表2-2)

## 東・西貿易増加 推移

(單位：%)

年 度	世 界 輸 出 額	域 内 輸 出 額		東・西貿易 額 總 計
		資 本 主 義 国	社 会 主 義 国	
1961	4.7	4.4	-1.0	15.4
1962	5.6	5.1	9.1	7.1
1963	8.9	9.1	6.1	12.1
1964	11.9	12.0	6.5	16.4
1965	8.3	8.3	4.3	13.0
1966	9.1	9.4	0.7	12.0
1967	5.3	5.1	8.4	5.3
1968	11.7	12.4	10.8	4.5
1969	14.0	14.8	8.8	11.3
1970	14.2	14.8	11.1	13.5

資料：1961-67年度 数值

U.n. Statistical year Book, 1968

1968-70年度 数值

U.n. monthly Bulletin of Statistics, June, 1971

(表2-3)

## 東・西貿易の 年度別 増加状況

(單位：10億\$)

	1950	1960	1965	1969	1970
共產圏 諸国貿易總額	10.7	33.8	48.5	65.5	71.7
構 成 比 (%)	100.0	100.0	100.0	100.0	100.0
comecon 域内貿易	8.2	26.6	39.9	54.4	61.2
対自由圏 貿易額	4.0	9.9	13.9	24.0	27.0
構 成 比 (%)	37.4	29.2	28.7	36.6	98.2

資料：蘇聯 東欧經濟速報，1971, 12

註：comecon 域内交易額は 中継，再輸出包含

### 第3章 北韓經濟体制의 問題點 및

#### 變動要因分析

##### 가. 變動要因의 問題點 導出

오늘날 中央集權의 共產主義体制를 固守하고 있는 共產圈諸국가  
운데에서도 가장 완고한 北傀는 社會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達成하  
기 爲하여 生産關係의 社會主義的 改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社  
會主義의 物質, 技術의 土台를 強化한다는 命題下에서 出發하여 「  
社會主義的 工業化와 人民經濟의 技術的 再建을」그들 經濟政策의  
基本目標로 設定하고 自主的 工業基盤을 確立함으로써 社會主義建設  
을 推進시키며, 北韓의 革命基地를 強化하여,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궁극적 目標로서 追求하고 있는 것이다.

北傀는 이제껏 解放以後, 1950年度까지 主로 土地改革에 主眼點  
을 둔 準備作業을 進行하였고, 1954年度부터 1960年度까지는 戰災  
復旧와 自立經濟의 基盤을 確立하려는 社會主義經濟의 基礎的 建設  
期로 삼았으며, 北韓의 經濟發展의 主要한 轉換點을 이룬 1961年  
부터 1970年度까지의 7個年經濟計劃期間에는 重工業優先策과 병행  
하여 初期에는 輕工業 分野에도 어느 정도 關心을 集中시켜 勞動  
生産性を 增大시키려는 努力을 傾注하였으나, 60年代 中半期부터 軍  
事的 強化에 依한 國防費의 大幅的인 增大로 말미암아 本來의 目  
標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重工業 優先策으로 인한 急速한 經濟成長을 爲해 採

摺된 高度의 中央集權的 管理体制는 그것이 經濟發展目標에 지나치게 執着하는 데서 緣由되는 效果性 爲主의 生産活動과 産業構造의 低下等 深刻한 苦悶을 안고 있는 것이며, 結果的으로는 全体的인 經濟成長의 鈍化現象으로서 集約되고 있는 것이다. (表 3 - 1)

< 表 3-1 >      北韓의 年度別 國民所得 變化 推移

( 1961 - 1970 )

( 單位 : 1,000 万弗 )

年 度	國 民 總 生 產 (GNP)
1961	134.5
1962	149.4
1963	163.6
1964	179.9
1965	181.0
1966	192.4
1967	211.2
1968	257.4
1969	272.5
1970	319.4

資料 : 國土統一院, 北韓經濟統計集, 1972.11

이와 같이 60年代에 들어와서北韓은 그들 7個年經濟計劃의 失敗과 더불어, 여러가지 構造的인 側面에서의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데,

첫째의 問題點은 生産의 量的인 目標에 對한 지나친 執着으로 말미암아 創意와 能率(Efficiency)의 問題를 度外視하는 性向을 深化시켰으며, 이같은 現象은 生産品의 質的인 低下와 製品의 單純化 現象을 招來하게 되었고

둘째로는 官僚主義的 生産管理体系의 矛盾點이 深刻하게 역기능을 투영함으로써 人間關係的 接近法에 依한 改善의 努力이 계속되고 있는데 強制性和 規範性보다 漸次 物質的 誘因提供에 神經을 쓰고 있는 傾向을 볼 수 있으며,

셋째, 이제껏 北韓이 追求하여 온 閉鎖(Autarky)自給自足形態의 經濟 建設을 推進하면서 많은 副作用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는데, 石油化學工業이 落後한 現象도 하나의 例임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北韓은 6個年經濟計劃이 立案되면서 부터 이에 必要한 資源과 設備를 充員 調達하기 爲하여, 積極적인 貿易의 擴大政策을 推進하고 있다. 이같은 北韓의 새로운 國際秩序에의 適應現象은 自身을 開放體制로 變質시킬 可能性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外國技術의 收容과 모방에 급급했던 經濟體制가 6個年計劃 期間에 들어 오면서 技術革新의 切迫性을 느끼고 産業의 系列化까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技術革新을 爲한 體制의 開放은 거의 不可避한 現象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넷째, 北傀가 追求하고 있는 重工業 優先政策은 自由主義 經濟體制와는 달리 鉅業開發, 基礎施設材 工業, 中間原資材工業, 最終消費材工業으로 逆行을 하는 現象을 볼 수 있다. 따라서 生産財 工業部門과 消費財 工業部門間的 緊張 現象을 빚고 있으며, 따라서 近代的 工業化의 基本要件인 質的인 高度化나 生産構造의 多樣化라던가 聯關産業의 同時的 發展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北傀는 現在 이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爲하여 地方行政機關中心의 地方工業의 設立을 強化하였고, 分權的 管理体系로의 轉換을 企圖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日用品省의 創設도 이같은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要求로서 비롯되었으며, 現在 推進하고 있는 6個年計劃으로 重工業基地를 基盤으로 輕工業 基地와 産業系列化를 推進하고 있으며 中央工業과 地方工業을 連結시킬 計劃을 갖고 있으며, 特히 工業化에 따르는 技術的 不足을 메우기 爲한 技術者 및 經營專門家들의 教育이 強調되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다.

다섯째, 國防費의 膨脹現象을 볼 수 있는데, 1966年까지는 民族保衛費라고 칭하였으나 67年度부터는 國防費로서 칭하고 있는데

1966年度の 國防費의 比重은 歲出豫算의 10%에 不過하였으나 67年度부터는 30%로 膨脹된 現象을 볼 수 있으며, 이같은 現象은 지난 60年代 中半期 美, 蘇의 關係가 好轉되므로써 自主的 防衛體制를 한층 強化하여 軍事費 擴張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의 制限된 資源으로서 社會主義 工業化를 推進하고 있

는 北韓으로서는 投資財源 確保에 차질을 안겨주고 있는데, 오늘날 東歐羅巴共產國家를 볼때, 國防費에 對한 支出이 GNP에 對하여 차지하는 比重은 「헝가리」의 경우 3%, 「체코스로바키아」 7%, 蘇聯의 경우 13%에 達하고 있는데 北韓은 그들 總豫算에 約 30%를 차지함으로써 60年代의 經濟沈滯를 만회하기 爲하여서는 이같은 高度의 軍事費 負擔의 부담이 不可避한 事實로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全體的으로 볼때 北韓經濟의 變動要因으로서 當面한 問題點은 生産의 量的 目標을 追求하고 있는 中央集權的 統濟計劃과 官僚主義的 生産管理體制를 들 수 있고 自給自足型의 經濟體制와 重工業 優先策, 軍事費負擔의 지나친 增加現象을 들 수 있다.

#### 나. 經濟體制의 變動要因 分析

##### (1) 中央集權的 經濟計劃 (生産의 量的目標)

北韓은 그들의 社會主義計劃經濟를 推進하는 過程에서 모든 資源과 生産手段을 國家計劃委員會가 장악하고 있으며, 資本主義經濟體制에서와 같은 「價格機能」에 依한 資源과 用役의 分配가 배제되고 있으므로 國家計劃委員會가 모든 經濟活動을 統制하고 있다.

따라서 北韓의 經濟는 統制計劃(Controlling Plan)에 依하여 運營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經濟計劃은 指示的 計劃(Indicative Plan)에 反對되는 概念으로서 經濟計劃의 目標가 設定되면 이것을 達成하기 爲한 政策手段을 動員하여 間接的으로 誘導하는 것이 아니라 直接的으로 計劃目標을 達成하기 爲한 統制手段을 驅使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計劃目標도 價值(Value)로서 表示되는 것이 아니고 「노르마」라고 하는 物量으로서 表示되는 것이 普通인데, 北韓의 經濟計劃 機構를 구체적으로 볼것 같으면 政務員 國家計劃委員會가 있으며 그 主要 機能은 첫째로 經濟展望 및 長期經濟計劃의 作成과 둘째로, 政務院의 各부와 委員會 및 地方計劃機關에 依해서 作成된 經濟計劃案을 조정하고, 셋째로는 經濟計劃의 실시에 依한 監視 및 檢閱 그리고 必要的 是正策을 樹立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같은 中央의 國家計劃委員會 아래 道, 市, 郡의 計劃委員會를 設置하고 있는데 經濟計劃의 作成過程을 볼것 같으면, 勞動黨 中央委員會 또는 中央人民委員會가 決定한 基本政策을 政務員에 指令하면, 政務院의 國家計劃委員會가 各部內別 經濟計劃의 細部草案을 作成하여 管下企業체 및 地方計劃機關에 下達하는 形態를 取하게 된다.

地方의 計劃機關은 이같은 草案에 따라 다시 自體의 計劃案을 作成하고 下部生産單位에 전달되고, 다시 下部生産單位는 企業所, 工場等의 勞勞者의 集會에서 決定書를 採択하면 다시 市, 郡으로 부터 道 中央으로 逆行하여 國家計劃委員會가 最終的인 目標量과 計劃事項을 綜合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勞動黨은 政策의 參謀部로서의 地位를 占하고 各部門과 企業所에 침투하여 計劃進展 狀況과 品質, 品種等を 監督하고 督促한다.

따라서 北韓經濟의 計劃管理体系의 몇가지 特徵을 要約하여 보면  
①生産單位는 企業체의 支配人責任下에 獨立採算制를 實施하고 있으며



② 모든 生産指標은 中央의 劃一的 管理下에 指揮統制되며 ③ 모든 商品과 用役은 中央에서 策定하는 價格에 依하여 公定制로 評衡되고 있다.

北韓은 이제껏, 이같은 生産管理体系를 여러번 改編함으로써 生産의 效率化를 期하려고 하였으나 經濟發展과 병행하여 生産의 構造가 심화할 수록 官僚主義的 管理体系의 欠陷은 擴大되고 있는 現象을 볼 수 있는데 蘇聯과 東歐에서와 같은 制度의 内部的 改革이 아닌 金日成 唯一思想을 基盤으로 한 勞動者와 管理層의 政治思想 武裝을 強化함으로써 生産活動을 提高시키려고 努力하고 있다.

그러나 實際에 있어 「노르마」를 中心으로 한 量的인 側面에서 生産目標가 表示되는 경우, 生産管理人들은 生産目標達成을 爲하여 價格을 高價로 策定하기 쉬운 製品生産에만 注力하여 例를 들어 「北靑 機械工場」은 이같은 高價品目的 경우 計劃보다 5倍 내지 10倍의 増産을 達成하였으나 여타 品目に 있어서는 計劃의 35 - 36% 밖에 生産하지 못한 實情을 볼수 있으며, 또한 生産目標의 量的인 達成에 치우쳐 目標의 質的 側面을 소홀히 하여, 1953年度의 例를 들면 全体 機械工業生産의 9.2%는 不合格品임을 볼수 있다.

結局 中央集權的인 生産計劃 統制體制는 그 本質上 龍대한 官僚機構를 生成시키게 마련이며 各部署와 諸委員會를 연결하는 巨大하고 複雜한 經路를 通하여 肥大한 官僚機構內的 官僚障은 個別生産單位에 對한 生産目標의 割當으로 부터 經濟全分野에 걸친 資源配分에 이르기 까지 無數한 決定을 내리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 結果 北

韓의 경우 計劃立案者들이 各部署間의 業務의 調整問題라든가 情報不足, 또는 部署에 따른 各기 다른 政策決定問題等에 시달리다 보면 計劃의 蹉跌이나 相互矛盾되는 政策決定의 混亂이 야기되는 것은 必然的 現象인 것이다.

또한 官僚陣의 計劃技術이 아직도 未熟하다는 것은 工場水準에서는 흔히 供給物資 및 人力不足現象이 일어나서 經濟循環過程에서 需要와 供給의 마찰이 야기되는 것이다.

이같은 現象은 蘇聯에 있어서도 지난 1956年부터 始作된 價格에 對한 批判的 論議와 生産과 資源配分을 指導함에 있어 中央의 指令보다 市場性과 財貨의 循環에 보다 큰 役割을 賦與하는 方向으로 서서히 移行함에 따라, 蘇聯의 經濟學者 및 政策樹立家 政治指導者들은 漸次 價格機能에 注意를 기울이게 되었다.

따라서 1956年부터 始作된 價格에 對한 批判的 論議는 蘇聯經濟에 있어 價格制度의 많은 欠陥을 폭로했으며 多樣한 改革案이 續出하였는데 小規模의 技術的 修正案으로 부터 基本的 性格의 抜本的 變革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그러나 蘇聯共産黨과 官僚陣들이 이같은 價格問題의 큰 關心을 가지고 있음은 事實이지만 中央計劃當局은 財貨의 不足을 反映하여 可用資源을 効果的으로 配分할 수 있는 價格을 確保하기 爲하여 價格制度의 大幅的인 改革에 있어서는 매우 주저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 理由는 黨이나 經濟計劃立案者 및 官僚들이 이같은 改革에 抵

抗하고 있기 때문인데, 蘇聯의 政治指導者와 計劃立案者들은 全体經濟에 對한 管理權을 消費大衆의 至上權에 讓渡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彈力的·價格의 產出量을 決定시키고 資源을 配分하고 所得을 分配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生産管理 体系의 矛盾

北韓에서의 生産單位에 對한 管理体系를 改訂하려면 北韓이 그들 社會主義 生産管理体系의 理論과 實際에 變革을 가져 왔다고 主張하고 있는, 소위 「大安의 事業体系」를 中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기존 經濟管理体系, 특히 工場水準의 管理体系의 欠陥이 있다는 事實이 北韓의 政策決定者들에게 明白해진 것은 지난 1950年代 末이다. 이같은 事態에 對하여 北韓은 黨의 組織을 通하여 工場 및 地方水準의 政治的 統制를 一層強化하는 一方, 中央集權的 管理体系의 完化로서 對峙하려 하였는데 工場 및 生産單位에 黨指導者가 補強되었으나 나아가서 地方水準의 計劃業務水準을 向上시키기 爲한 目的으로서 道計劃機構가 創設되어 道內에 모든 計劃業務에 對하여 統制를 할 수 있도록 措置하였다. 따라서 大安事業体系는 企業의 支配人을 代身한 工場水準에 있어서의 集團指導의 概念에 重點을 두고 있는데 卽, 工場黨委員會가 工場의 支配人 技士長, 黨委員會로 構成되는 集團指導制에 있어서 主導權을 갖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大安體系에 들어와서 몇가지 措置가 取해진 것이 事實인데, 예를

들면 計劃立案過程에서 勞動者의 直接參與는 가장 特徵的인 措置를 이루고 있는데, 勞動者들의 生産計劃樹立 過程에의 直接參與를 通해서 北韓은 工場水準에 있어서 從來의 非現實的이었던 生産計劃을 勞動者의 素質과 技術로 부터 機械의 能力과 特性에 이르는 工場內의 모든 關係要因을 考慮한 基礎위에서 樹立된 보다 正確하고 現實的인 計劃으로 代替하려고 試圖한 것이다.

따라서 勞動者들이 生産計劃에 直接參與한 結果, 勞動者들이 生産目標達成을 爲해 보다 努力하고 있다고 北韓은 主張하고 있는데, 北韓은 勞動者들의 計劃立案에의 이같은 直接參與를 通하여 보다 集中的으로 勞動을 強化하기 爲한 方案으로 勞動者들 스스로의 生産基準量의 設定을 許容하였다.

即, 各作業班內에는 여러가지 生産의 標準量을 決定하는 소위 「自体標準量 決定委員會」가 組織된 것이며, 이에 따라 大安의 새로운 事業體系下에서 大安電氣工場에서 만도 約 2,600件 以上の 作業標準이 變更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作業標準의 修正이 주로 上向調整된 것인지 또는 下向調整된 것인지는 밝혀진 바 없으나 如何든 修正件數가 많았다는 그 事實 自体만으로 大安體系 實施 以前에 計劃體系가 얼마나 非現實的이었던 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다.

大安體系에서는 勞動者들의 生産計劃樹立에의 直接的인 參與外에도 各作業班 스스로가 作業日程을 決定하고 製品檢査를 實施하며 各勞動者의 作業成果를 評價하도록 許容하고 있는데 大安體系的 또다른

하나의 特徵은 生産計劃과 統制를 合理化할 目的으로 各工場에 生産參謀制度를 導入하였다는 點이다. 따라서 計劃, 生産指導, 技術指導部門으로 構成된 生産參謀制度는 技士長에게 報告할 素質을 지고 있는데, 이는 工場에 있어서의 극심했던 技術者의 不足現象이 약간 완화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한편 物資供給問題에 對한 工場管理人들의 不安과 우려를 解消하고 各工場에 物資供給을 원활히 하기 爲하여 各省의 物資供給專担機關이 新設되었고 地方의 倉庫建設이 強調되었으며, 所要物資의 適期供給을 보장해 주기 爲해서 여러 專門家들이 各作業場에 파견되었다.

또한 物資의 供給不足이 發生한 경우에는 工場의 生産目標을 再調整하고 때로는 한 工場의 剩餘物資를 다른 工場의 需要에 充當하기 爲해서 이를 轉嫁시키는 權限이 關係各省에 부여 되었다.

그러므로 大安體系는 어떤 意味에 있어서는 勞動生産性 向上과 勞動者의 慾求充足을 同時에 滿足시키는 勞動集團動機賦與理論을 提起한 「맥그레거」의 「Y理論」과 類似성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結論적으로 볼때 生産의 計劃 및 統制에 있어서의 中央官僚組織의 複雜性으로 부터 從來의 많은 難點이 提起되고 있었다는 事實을 볼때 「靑山里 方式」이나 「大安體系」 할것 없이 各級水準의 官僚들로 하여금 實際生産分野에 諸問題點에 接하게 하고 現地에서 必要한 措置를 取할 수 있도록 影響을 주었다는 意味에 있어서는 약간의 成果를 거둔 것 같다.

北韓은 거의 10年 前에 生産管理分野에 있어 大安体系가 導入된 以來 다른 아무런 改革이 이루어 진바 없는데, 이같은 北韓이 大安体系에 어느정도 滿足하고 있음을 示唆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管理上의 諸問題를 處理함에 있어 大安体系는 다소의 치밀성과 内容改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 이같은 觀点에서 尙차 北韓의 工業生産의 管理方向이 어떻게 進歩되어 나아갈 것인지 이를 推定해 보는 것은 적지 않은 関心을 끌고 있는 것이다.

北韓이 官僚主義와 形式主義의 除去를 위한 思想教育을 強調하고 管理問題에의 合理的 接近에 力점을 둔다면 工場水準에서의 어느정도 改善된 管理体系가 發展될 可能性이 없지 않는데 그러나 管理의 効率性은 管理情報体系, 費用效果分析, 生産統制와 在庫管理의 電子計算化等 西方世界에서 一般的으로 通用되고 있는 各種 管理技術의 導入과 發展等 다른 要因들에 依해 크게 左右되기 때문에 工場水準에서의 이러한 專門技術을 欠如하고 있는 北韓으로서는 이러한 專門管理 技術의 欠如가 尙차 크나큰 隘路要因으로 登場할 것이 豫측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 보다도 主要한 問題는 工業管理에 있어서의 自由와 秩序라는 根本的인 問題에 北韓의 政策決定者들은 조단간 부딪치지 않을 수 없다는 事實을 볼 수 있는데 大安体系가 生産管理에 있

어서 從前에 比해 약간 權限分散的인 措置를 取하기는 하였지만 共產主義管理体系 自体가 本來 個人의 創意를 희생하고 中央計劃을 通한 순서와 組織化 그리고 規律을 보다 重要視하고 있는 限 合理的 管理体制의 改革은 未決의 問題로 남아 있는 것이다.

### (3) 自給經濟体制의 脫避 可能性

經濟協力이라든가 資本의 導入은 우리가 國民計定上 2가지 側面에서 認識해야 하는데, 하나는 國內投資의 不足分을 補完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輸出을 超過하는 輸入을 補完하는 것이다.

Kindleberger 에 依하면

$$F = I - S \quad \text{또는}$$

$$F = M - X \quad \text{로 表示된다.}^{\text{註1)}$$

( F = 外資, I = 投資, S = 貯蓄

M = 輸入, X = 輸出 )

Rosenstein - Rodan 은 諸國間 資本導入의 目的은 開發途上國이

---

註 1 ) Charles P. Kindleberger, Economic Development, 1965, P. 322-328.

自力成長基盤 (A Self - Sustaining Basis) 위에서 滿足할만  
한 成長率을 이룩하는 지점까지 經濟開發을 速成化하는 것이라 하  
였다.

이와 같이 오늘날 開發途上國의 經濟開發을 速成化 하는데 있어  
서는 外資導入이 必要한 것이라고 하면, 이같은 外資의 導入에  
있어서는 受容能力 (Absorptive Capacity)과 償還能力 (Debt Ser-  
vicing Capacity)이 問題가 된다.

Walter Krause 는 「開發途上國의 資本受容能力은 過度한 「인  
프레」와 현저한 國際收支의 不均衡을 招來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制約되는 것」<sup>註2)</sup> 이라고 하였고 Gulhati는 「外資의 受容能力은  
資本의 限界收益率과 社会的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割引率에 一  
致하는 投資의 量이라 하였다.<sup>註3)</sup>

따라서 外資導入의 基本方向은 國內資源의 開發狀態, 國民貯蓄率,  
投資計劃의 内部均衡과 併行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註2) Walter Krause, Economic Development, P. 253

註3) Ravi I. Gulhati, The Need for Foreign Resources,  
「Absorption Capacity and Debt Servicing Capacity」  
Paper for I. E. T.A Conference on Capital Move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예를 들면 60年代 韓國의 經濟發展 過程에서 基幹産業의 育成 이라는가, 社會間接資本의 擴充을 爲한 과감한 外資의 導入은 年平均 10%에 達하는 高度의 成長率을 記錄할 수 있었고 韓國經濟의 이같은 急激한 成長은 무엇보다도 資本의 協力이 順調로워서 投資의 뒷받침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北韓에 있어서는 國際的 經濟協力關係가 취약하고 그것이 經濟沈滯의 基本要因을 形成하고 있는데, 蘇聯과 東歐諸國은 소위 「經濟相互援助會議」(Comsocon)에 加入하여 共產國家間의 國際的 分業을 비롯하여, 經濟協력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特別히 오늘날은 東·西貿易의 急激한 擴大傾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特徵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北韓이 이같은 蘇聯主導下의 經濟相互援助會議에 否定的으로 對하고 있는 것은 소위 그들의 「自主經濟政策」과 어긋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며, 다른 한편으로 蘇聯에 對한 經濟依存이 金日成 權力維持에 威脅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北韓이 이와 같이 蘇聯의 現代修正主義를 두려워 하고 있는 事實은 金日成의 權力이 「스탈린」 主義的 暴惡과 獨裁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스탈린」 死亡以後의 蘇聯의 政治思潮과 統治方式을 받아 드린다면 金日成의 權力이 維持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며

이렇듯 實質的인 經濟發展의 要請보다는 獨裁權力の 維持를 優先시  
키고 있으며, 이같은 事實을 北韓은 「自立經濟」로 正當化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난 1960年代初에 이미 蘇聯 및 中共을 비롯한 共  
産國諸國의 無償援助는 대체로 끊어졌으며 오늘날 貿易의 幅도 極  
히 制限되어 있는 形便을 볼 수 있다.

北韓은 現在 蘇聯과 中共을 비롯한 12個 共産國家와 約 30個  
國의 「亞細亞」「아프리카」地域을 비롯한 非同盟諸國 및 約 20  
個國의 日本을 包含한 西方諸國等 도합 約 60個國과 貿易을 하고  
있으며, 初期에는 對蘇貿易이 對外貿易總額의 90% 以上을 占이 하  
여 왔으나, 지난 1960年代 以來 貿易對象國이 漸次 增加하여 對  
蘇一辺倒에서 벗어 났으나 아직도 蘇聯은 北韓의 貿易總額의 約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中共으로서 約 20%, 따라  
서 北韓의 貿易總額의 60%는 中共과 蘇聯이 차지하고 있는 것  
이다.

지난 1970年度의 北韓의 總貿易規模는 約 6億9千萬弗에 達하  
고 있으며, 72年度에는 貿易規模가 10億弗 相當에 達하고 있으며  
62년부터 70年度까지 8年間의 輸出의 增加率은 겨우 11.4%로  
나타나 있다. (表3-2)

(表 3 - 2)

## 北韓의 對外 貿易推移

(單位：1,000 弗)

年 度	輸 出	輸 入	合 計	前 年 比 增 減 率 (%)
1961	160,000	166,400	326,400	2.0
1962	224,000	128,510	352,510	8.0
1963	190,680	230,080	420,760	19.4
1964	193,440	222,240	415,680	-1.2
1965	218,930	231,250	450,180	8.3
1966	245,650	241,890	487,540	8.3
1967	222,500	217,500	440,000	-9.8
1968	276,700	306,120	582,820	32.5
1969	306,720	389,370	696,090	19.4
1970	330,745	374,804	750,552	

資料： 北韓現況； 國際問題研究所， 1971.3

이와같이 北韓의 貿易政策은 철저한 自給自足型으로서 共產圈諸国 가운데에서도 國民所得에 對한 貿易의 比率이 가장 낮은 形便인데, 生産製品의 原價上昇을 無視하고 自体에서 供給이 可能하면 充當하기 때문에, 國際分業이나 比較優位의 生産費概念을 無視하고 있다.

그러나 近年에 와서 特徵은 北韓이 現在 推進하고 있는 6個年

計劃의 目標達成을 爲하여, 自由陳營과의 貿易增大와 特히 日本과의 經濟協力の 強化를 試圖하고 있는 點을 注目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自由陳營과의 貿易에 있어서는 北韓의 緩和된 貿易政策과 自由主義 陳營에 있어서의 輸出競争의 激化를 背景으로 하여, 北韓과 西歐諸 國과의 貿易은 1964年以來 活潑해 졌다. 特히 西方諸國은 60 年代에 北韓의 工業化의 推進에 따른 施設材의 需要增大에 注目하 여 施設材輸出의 積極化를 보였다.

特히 1968年 봄부터 平壤과 巴里에 通商代表部를 相互設置한 仏蘭西外에 西獨, 英國, 和蘭,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이 北韓과 貿易去來를 擴大하고 있으며, 이中에서도 「오스트리아」는 「빈」에 北韓의 通商代表部 設置를 認定하고 있다.

日本, 北韓間의 70年度 貿易額은 約 5千8百萬弗로서 前年度의 5千6百萬弗보다 增加하고 있으며, 70年에 日本, 北韓과의 合意된 貿易規模 5千2百萬弗은 61年度에 比하여 約 6倍가 넘는 額數 임을 볼 수 있다. (表3-3)

現在 日本의 對共產圈 貿易額中 日朝貿易은 日蘇貿易 日中貿易 다음가는 第3位에 있다. 去來品目으로서는 北韓에서 日本으로 約 90個品目이 去來對象이 되고 있으며, 內容的으로는 1970年度의 경우 日本의 輸出에서 機械類와 化學製品이 全體의 61%를 차지 하고 있으며, 그밖의 纖維類, 紙類, 鉄鋼, 金屬製品, 雜製品 等임을 볼 수 있다. (表3-4)

特히 北韓이 이와 같이 日本을 包含한 西方諸國과의 貿易擴大에

(表 3 - 3 )

日・朝貿易의 推移

(單位：1,000 弗)

年 度	日本の輸出	日本の輸入	合 計
1961	4,938	3,976	8,904
1962	4,781	4,533	9,334
1963	5,347	9,430	14,777
1964	11,284	20,231	31,515
1965	16,505	14,723	31,228
1966	5,016	22,692	27,708
1967	6,378	29,609	35,976
1968	20,784	34,032	54,786
1969	24,160	32,190	56,350

資料：日・朝貿易。1969年7月

努力을 경주하고 있는것은, 지난 70年度에 끝난 7個年經濟計劃에 있어서도 또한 71年度부터 始作하여 現在 推進中에 있는 6個年經濟計劃에 있어서도, 工業 農業의 全般에 걸쳐 技術革新을 重點的인 課題의 하나로 삼고 있기 때문인데, 國防建設과 經濟建設의 併進策을 내세우고 있는 北韓은 必要한 大型機械와 各種 設備類의 調達을 共產圈貿易만으로는 不足하기 때문에 技術水準이 높은

(表 3 - 4)

日本の 対北韓輸出額에 對한 機械類의 比率(%)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輸出總額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機械類合計	9.3	24.1	16.7	19.1	39.0	52.1
一般機械	2.3	13.8	6.7	8.6	20.3	30.2
電氣機械	5.7	2.5	5.9	7.2	15.3	18.5
輸送機械	1.0	7.3	2.2	1.4	0.8	0.8
精密機械	0.3	0.5	1.9	1.9	0.6	2.6

資料： 日朝貿易， 1970.2

西方諸國과의 貿易擴大에서 求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經濟的인 側面에서 볼때,北韓은 西方諸國과의 이같은 交易의 擴大가 그들 經濟의 취약점을 補強해 주는 役割을 할것이나 아직도 加工度가 比較的 낮은 商品을 輸出하고 있기 때문에 輸出構造의 高度化가 時急히 解決해야 할 課題로 나타나고 있으며,北韓經濟의 發展에 따라서 經濟建設에 必要한 새로운 技術과 資本設備, 그리고 輕工業發展과 農業近代化를 爲한 設備導入의 必要性이 커질수록,北韓의 貿易規模는 擴大될 것이고 貿易構造의 高度化와 더불어 對自由權貿易은 더욱 擴大될 것이 展望된다.

이에 따라,北韓의 政治優先의 原則은 漸次 經濟優先의 原則으로 變更될 것이 予想되며 現在와 같은 經濟的 沈滯의 解決을 爲한 經濟優先原則은 結局 政治的인 緊張緩和까지도 予想되는 것이다.

(4) 重工業 優先策으로 인한 産業間 不均衡 深化

北韓은 8.15 解放以後 現在에 이르기까지, 모든 經濟分野를 社会主义形態로 單一化하고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下에서 重工業의 優先的 發展을 통하여 經濟發展을 促進하려는 基本政策을 強行하면서 社会主义 工業化를 追求하여 왔다.

그 实例로서 北韓은 7個年經濟計劃 期間인 1961-1969年間に 基本建設投資額 87億원 가운데서, 約 57%인 50億원을 工業部門에 投資하였는데, 其中 80%인 40億원을 重工業 建設에 配定하였다. (表 3-5)

이와 같은 重工業偏重은, 北韓이 現在 1976年을 目標年度로 推進하고 있는 「6個年計劃」에서는 多少 是正되고 있으나 基本建設投資의 配分面을 볼것 같으면 基本建設 總投資額의 49%가 工業部 (表 3-5)

北韓의 基本建設投資実績 (1961-69)

區 分	構 成 比		金 額 (北韓: 원)
	對 總 計	對 小 計	
工 業	57 %	100 %	50 億원
重工業	46 %	80 %	40 "
輕工業	11 %	20 %	10 "
農 業	20 %		17 "
其 他	23 %		20 "
總 計	100 %		87 "

資料: 國土統一院

門에 配定되어 있으며, 그中 83%가 重工業에 配分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北韓의 經濟政策은 繼續 重工業에 偏重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重工業 優先政策은 所謂 「스탈린」主義의 遺産이라고 볼 수 있는데, 「스탈린」은 모든 社會主義國家는 綜合的인 産業體系를 갖추어야 한다는 命題下에서 지난 1920年代末부터 繼續 重工業 優先政策으로 一貫하였는데 當時의 蘇聯은 欧州 열강의 포위속에서 社會主義建設이라는 危機意識으로부터 重工業 優先策을 不可避한 것으로 보았고, 그 結果 民衆의 消費生活 犧牲이 極度에 達하여 住民들의 不滿을 抑制하는데 恐怖政治를 빚어내었으며, 蘇聯은 重工業 優先과 國際的 孤立的 結果 資金源泉이 고갈되어 經濟危機를 惹起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北韓이 位置한 時代的 背景이 當時의 蘇聯과 比較하여 볼때, 여러가지 條件이 다른데도 不拘하고 重工業 優先策을 指向한 것은 初期에 独自の 經濟政策이 不在한 가운데서, 蘇聯의 政策을 그대로 모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重工業 優先政策이 北韓의 特殊한 條件下에서 金日成의 權力과 密着되고, 또한 그것이 侵略政策의 要求로서 強行하였기 때문에 주로 軍需産業을 爲主로 한 重工業 優先策임을 볼 수 있다.

一般的으로 工業化의 方向이라 함은 모든 産業의 技術的 變化 發展과 함께 産業構造가 質的으로 어떻게 變化하며 生産構造 또는 生産樣式이 어떻게 變化해 하는가를 意味한다. 또한 不足한 資本



으로 全産業을 開發시켜야 하는데 있어서는 不均衡成長論者들이 主張하는 바와 같이 資本의 投資效率을 가장 높게 하기 爲하여 聯關效果(Linkage Effect)가 가장 큰 産業을 重點的으로 開發함이 必要하며, 다음으로 開放體系를 考慮하여 國際分業上的 優位에 있는 産業을 開發해야 한다.

從來 後進國의 境遇, 1次産業이 國際分業上的 優位에 있다고 보아서 1次産業에 特化할것을 主張하였으나 現代에 와서는 1次産業의 國際貿易上的 比重이 減少됨에 따라, 이같은 主張은 修正되고 있으며 19世紀 까지만 해도 世界의 貿易構造는 農業國과 工業國間에 가장 많은 比重을 차지 하였다. 即, 工業國은 農業國으로부터 食糧 및 工業原料를 輸入하고 農業國은 工業國으로부터 工業品 消費財를 輸入함으로서 農業國과 工業國間의 貿易量은 全貿易量의 70-80%를 차지 하였다.

그러나 20世紀에 와서는 이와 같은 貿易構造가 變化하고 貿易의 依存度가 減少하고 있는데 「닉시」(Murkse)에 依하면 1850~1880 年間에는 貿易量이 270%나 增加하였고, 1880 - 1913 年間에는 170% 늘었으나, 1928 - 58年間에는 57%밖에 增加되지 않았다.

이같은 事實은, 先進工業國의 工業原料가 農産物 原料로부터 人工 工産物原料로 代替됨으로서 農産物의 輸入 依存度가 減少된데 起因한다.

오늘날 韓國을 包含하여 大部分의 先進諸國의 例를 볼것 같으면, 重工業이 1次産業部門의 뒷받침을 비롯한 技術的 基盤이 마련된

가운데서 發展하였는데 北韓에서는 이같은 基盤이 갖추어지지 않은 체 重工業에 偏重하였기 때문에 輕工業部門을 犧牲시켰으며, 同時에 産業 各 部門間에 不均衡이 深化되어 經濟發展의 鈍化現象을 招來하게 되었다.

따라서 北韓의 工業總生産의 年平均成長率은 年代別로 比較하여 볼것 같으면, (表 3-6) 工業部門의 成長이 1960年代부터 顯著한 鈍化趨勢를 보이고 있는것을 볼 수 있다.

이같은 事實은 主要工業製品의 計劃目標와 生産実績을 比較하여 보아도 뚜렷하다. 即 電力 石炭等 「에너지」部門과 工作機械生産에는 計劃量을 超過 達成하였으나 製鋼工業, 化學工業, 建材工業部門 등에 있어서는 目標에 下限線과 一致하거나 目標에 未達하는 不振한 生産実績을 7個年 經濟計劃에서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現在 推進하고 있는 6個年計劃의 基本課業은 工業化의 成果를 公고히 發展시키며, 技術革命을 새로운 높은 段階로 進前시켜 社會主義의 技術的 土臺를 더욱 튼튼히 하기 爲한 技術革命을 推進하는 것으로 보아 北韓經濟가 生産部門의 非效率性을 극복하기 爲하여 工業의 近代化를 實現시키지 않을 수 없는 限界點에 到達하였으며, 따라서 技術革命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北韓은 現行 6個年計劃에서, 7個年計劃期間에 投資된 基本建設 投資額보다도 더 增額된 投資를 計劃하였으며, 其中 約 49%를 工業部門에 配定하고 있다. 即 7個年 計劃期間의 工業部門 投資比

率 57%와 比較할 때, 北韓經濟의 工業 偏重傾向은 多少 緩和되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工業部門의 投資總額의 約 83%를 重工業部門에 配定하고 있는것을 보아서 6個年計劃에서도 重工業偏重政策을 그대로 持續하고 있다는 事實을 볼 수 있는 것이다.

(表 3 - 6)

年度別 平均工業成長率

(單位：%)

年 度	成 長 率
1942 - 49	49.9
1954 - 56	41.7
1957 - 60	36.6
1961 - 70	12.8
1971 - 76(目標)	14.0

資料： 國土統一院， 1972

結局 北韓은, 이제껏 重工業 優先的發展의 社會主義工業化를 推進하면서 高度의 技術과 大量의 資本을 必要로 하는 重工業을 自力으로 發展시키고져 하여 왔다.

그러나 重工業部門에 이같은 集中的인 投資는 産業間의 不均衡을 招來하게 하였으며 軍需産業을 育成하기 爲한 過重한 非經濟性投資는 60年代에 들어와서 北韓經濟의 全般的인 成長을 크게 鈍化시켰으며 産業間 不均衡을 더욱 深化시키는 要因이 되었다.

그럼으로 이같은 重工業偏重에서 招來되는 幣端과 副作用이 더욱 加重된다면 北韓經濟의 成長은 決定的 沈滯狀態에 빠지게 될 憂慮가 있음으로 北韓은 이같은 要因을 除去하고 繼續的인 經濟發展을 達成하고자 새로운 活路의 開拓을 模索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國防費 負擔의 過重(投資財源의 不足)

北韓의 軍事費 負擔率은 지난 1960年代 中半期부터, 急激한 膨脹을 이루어 왔는데 지난 1966年度의 予算에서 國防費가 찾아하는 比率이 19%이었으나 67년부터는 30%를 넘어섰고, 68年度에는 32.4%로서 絶頂에 達하고 있다. (表3-7)

(表 3 - 7)

北韓의 國防費 膨脹率

(單位：%)

年 度	總支出額	人民經濟費	社会文化費	國防費	機 關 管理費
1966	100	61.6	17.3	19.0	2.1
1967	100	50.1	17.5	30.4	2.0
1968	100	48.9	17.2	32.4	1.5
1969	100	47.6	19.7	31.0	1.7
1970	100	49.2	19.7	29.4	1.7
1971	100	48.0	19.2	31.1	1.7
1974	100	58.8	23.4	16.0	1.8

資料： 國土統一院

經濟力 發展과 軍事力 強化를 併行한다는 政策은 1966年, 党代表者 會議에서 宣稱되었으나 實際로는 1962年10月 「쿠바」危機가 蘇聯의 讓步에 依해서 收拾된 것에 刺戟되어 소위 國防에서의 自衛를 提唱하고, 同時에 經濟發展을 一定期間 지연시키더라도 軍事力을 一層 強化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決意하게 되었다.

그러나 「쿠바」危機가 解消된 以後, 國際緊張이 緩和되자 当初에 予定되던 7個年計劃을 推進하게 되었는데, 越南事態와 中·蘇 紛爭의 激化는 北韓으로 하여금 軍事力 強化에 集中的 投資를 強要함으로써 前記한 党代表者 大會의 決定은 1964年 以來 軍事力の 優先政策을 確認한 것이다.

따라서 71年度까지는 總予算의 30%以上을 軍事費에 支出하였고, 72年度부터는 現在에 이르기까지 名目上の 軍事費를 總予算에 20%以下로 減少시켰으나 實際에 있어서는 社會文化施策費라든가 人民經濟費에 恩賜한 것으로 보인다.

北韓은 오늘날 共產圈內에서도 蘇聯을 除外한 여타의 諸國보다 훨씬 많은 軍事費를 支出하고 있는데, 1968年度의 경우 共產國家들을 불대 國防費에 對한 支出이 GNP에서 찾아하는 比率을 불대 「불가리아」 2.9%, 「체코슬로바키아」 5.7%, 東獨 5.7%, 헝가리 2.7%, 폴란드 4.8%, 「루마니아」 3.0%에 達하고 있는 現象을 불대 北韓의 軍事費支出이 高率임을 볼 수 있다.

(表 3 - 8 ).

北韓은 現在 74會計年度에 있어서도 北韓貨幣로서 15億 6千 8百

만원에 相當하는 軍事費를 支出함으로서 總予算에 16%를 찾이하고 있으며, 弗貨單位로는 約 7億 6千萬弗 相當에 達하고 있다.

(表 3 - 8)

主要共產國家의 國防費 負擔率

( 1968 年 )

國 名	國防費總額 (1,000 弗)	GNP에對한比率	1人當 國防費 負 担 額
불 가 리 아	228	2.9	27
체 코	1,538	5.7	105
東 獨	1,715	5.7	100
항 가 리	370	2.7	36
폴 랜 드	1,830	4.8	57
루 마 니 아	551	3.0	28
蘇 聯	39,780	9.3	169
유고슬라비아	543	5.7	24

資料： Military Balance, 1969-1970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London, 1969

北傀는 오늘의 조성된 情勢는 社會主義建設과 더불어 軍事力의 繼續 強化가 要求됨으로서 自衛的인 軍事路綫을 관철한다고 되어 있으나, 限定된 財源을 軍事費로 돌린다는 事實은 經濟建設을 더욱 어렵게 할 制約要因을 形成하고 있으며, 더욱이 過去의 경우를 볼 때 名目上의 軍事費는 줄였으나 實質的으로 他項目에 隱蔽한 軍事

費를 넘친다면 10億弗이 훨씬 넘는 國防費를 支出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北韓은 現在 推進中인 6個年經濟計劃의 主要課題로 國防建設을 強化하며 戰爭準備를 더욱 強調하고 있는 事實을 볼 수 있는데, 이제까지 北韓의 經濟計劃이 失敗한 要因 가운데 하나가 이같은 軍費의 過重負擔이고, 지난 1970年 11月 勞動黨 5次大會에서 北韓의 支配層이 이러한 事實을 스스로 自認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現行 6個年經濟計劃에서 이같은 軍備強化를 重點的인 課題로 올려 놓은 事實은 經濟計劃과 實行 사이에 커다란 差質을 招來할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는 것이다.

## 第 4 章 改革의 展望

이제껏 北韓經濟의 變動要因을 分析하기 爲하여, 共產圈經濟의 制度改革過程을 歷史的인 側面에서 檢討하여 보았고, 이같은 共產圈經濟體制의 改革過程을 中心으로 하여 北韓經濟의 變動要因을 導出하였다. (第 3 章)

一般的으로 共產圈 經濟體制의 變動要因은, 그들 體制가 지니고 있는 構造的 矛盾으로 因한 經濟沈滯를 克服하기 爲하여 試圖된 制度의 改革을 말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蘇聯의 경우 共產主義 經濟體制가 生産性的 低下를 갖어온다는 矛盾性을 認定하고 지난 1965年부터 西歐資本主義의 成長刺戟劑인 企業의 「利潤追求方式」을 採択해 왔고, 蘇聯共産黨 中央委員會가 全面的으로 採択하기로 한 이같은 새로운 制度란 이른바 「利潤指向型」으로서, 中共이 指摘하고 있다시피 「맑스」主義에 對한 修正일 뿐 아니라 事實은 그의 否定이 되는 것이다.

이른바 社會主義的 生産方式은 中央集權的인 一元的 計劃과 統制에 依하여 質과 「코스트」를 無視하고, 量的 確保에 政策의 重點을 두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經濟發展以前의 初期의 「均貧狀態」에 있어서는 應分の 成果를 거둘 수 있으나, 經濟發展이 一定한 水準에 이르면 勞動生産性的 低下, 「코스트」의 增大, 品質의 粗劣等으로 因하여 生産성이 停滯되고 國際競爭力을 喪失하면서 經濟成長을 鈍化시키게 마련인 것이다.



蘇聯에서는 이제껏 工業部門에 줄곧 이러했고, 農業部門에 있어서  
는 더욱 심했다. 協同農場에 얽매어 있는 蘇聯의 農民은, 지난 50  
年 동안 사보타주로一括해 왔고 結局 耕地 3.5% 程度의 私有  
및 그 生産品의 自由處分權을 認定해 준다음 肉類의 40%以上과,  
채소의 80%以上이 이같은 私有農場에서 生産되었다.

「리베르만」「미무치노프」「트라페즈니코프」等에 依해서 62年以  
來 提唱된 自由主義經濟制度의 導入等이 公公然이 나돌기 始作하고  
蘇聯共産黨 中央委에서도 不得이 이같은 體制에 實施에 着手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지난 1966年度에는, 704個 企業체에, 67年度에는 5千  
5百, 68年度에는 6千여개로 그 體制를 擴大 實施하여 갔다.  
이같은 類의 企業체가 차지하는 生産的 比重은 全体 蘇聯工業總生  
産에 對해 約 4割이 되는 것이다.

새로운 體制란 要컨데 ①生産方式의 企業체 獨立性 擴大에로의  
轉換과 ②企業의 獨立採算制의 強化 ③價格制度의 合理化 ④勞働者  
에 對한 物質的 關心의 刺戟等으로 要約되는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도 이같은 蘇聯의 改革過程에서 惹起된 問題點이  
그대로 適用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北韓經濟의 當面 問題點으로서의  
變動要因은 優先 ①生産의 量的 目標을 위주로 한 中央集權的 經  
濟計劃과 ②官僚主義의인 生産管理体系의 矛盾을 들 수 있으며  
③金日成 唯一思想을 基礎로 한 自給經濟體制와 ④重工業 優先策을  
偏重하였기 때문에 産業間 不均衡의 沈化現象을 들 수 있으며

⑤国防費의 過多한 膨脹現象等を 指摘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여러가지 問題點은 서로가 密接하게 關聯되어 있는 現象임을 볼 수 있는데 北韓의 支配層은 經濟政策에 있어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그대로 反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 軍需産業을 爲主로 한 重工業 優先策도 初期의 蘇聯의 經濟政策을 模倣한 點도 있으나 現在에 와서는 오히려 이같은 重工業 優先策이 金日成 權力과 密着되고 또한 그것이 侵略政策의 要求로서 繼續 強行되고 있는 것이다.

同時에 이같은 社會主義的 工業化를 達成하기 爲하여 採択한 人力 動員手段으로서 千里馬運動과 大安體系를 빼놓을 수 없는데 千里馬運動은 勞動力을 動員하는 同時에 生産意慾을 刺戟하기 爲한 戰略임을 理解할 수 있고 大安體系는 黨의 組織的 統制를 더욱 強化하는 手段으로서 간주할 수 있다.

結局 北韓의 社會主義 工業化 戰略은 오늘날 金日成 唯一思想體系를 確立시켜주는 手段으로서의 機能을 担当하고 있으며, 重工業 優先策의 지나친 強行으로 말미암아 勞動者와 農民, 生産과 消費 그리고 工業과 農業間의 格차를 沈化시켰으나 그들의 軍事力 強化에는 絶對的인 寄與를 하여 왔다.

그럼으로 全體的으로 볼때, 社會主義 工業化가 進行되면서 北韓社會에서는 構造的 變動이 緩慢하게 일어나고 있으나, 制度運營의 伸縮性의 欠如로 말미암아 적어도 金日成이 生存하는 限, 短期的 側面에서의 變動의 可能性은 微弱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事實은 現在 蘇聯에 있어서도 制度改革의 核을 이루고 있는 價格體系가 成立되지 못하고 있는데, 蘇聯經濟가 生産과 資源配分을 指導함에 있어 中央의 指令보다 市場性과 財質의 循環에 보다 큰 役割을 賦與하는 方向으로 徐徐히 移行해 감에 따라 蘇聯의 經濟學者 및 政策樹立家, 政治指導者들은 漸次 價格機能에 커다란 注意를 集中하고 있으며, 1956年부터 始作된 價格에 對한 이같은 批判的 論議는 蘇聯經濟에 있어 價格制度의 많은 欠陷을 폭로하였으며, 多樣한 改革案이 續出하였는데 小規模의 技術的 修正案으로부터 基本的 性格의 抜本的 改革까지를 包含하고 있다.

結局, 蘇聯共産黨과 政府의 最高幹部들이 現在 이같은 價格問題에 큰 關心을 가지고 있는것은 事實이지만, 中央 計劃當局은 財貨의 不足을 反映하여 可用資源을 效果的으로 配分할 수 있는 價格을 確保하기 爲하여 價格制度의 大幅的 改革에는 매우 주저하고 있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가지 理由는 經濟計劃入案者 및 行政官僚들이, 이같은 改革에 抵抗하고 있기 때문인데 蘇聯의 政治指導者와 計劃入案者들은 全体經濟에 對한 管理權을, 窮極的으로 消費者의 至上權에 넘겨주는 것을 꺼려하며, 따라서 彈力的 價格의 産出量을 決定시키고 資源을 配分하고 所得을 分配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한편 長期的인 側面에서는 오늘날 強大國間의 實利爲主의 國際政治秩序와 또한 韓半島에서의 平和의 定着이 이루어 진다면, 北韓에 있어서도 政治優先보다 經濟의 優先이 政策決定에 指標를 이룰 것이며 이에따라 모든 部門에서 金日成 唯一思想을 代身하는 새로운 修正主義思想이 抬頭할 潛在性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